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역대급 가뭄에 양수장 5개소 24시간 가동

[김준혁]

한 달 강수량 평년 17.6% 수준...1973년 이후 역대 두 번째 최저
백포방조제 비상수문 폐쇄·퇴수 재활용...해남군의회 양수장 설치 건의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가 역대급 폭염과 강수 부족으로 인한 가뭄에 대응해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폴리뉴스 김준혁(=호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가 역대급 폭염과 강수 부족으로 인한 가뭄에 대응해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남완도지사(지사장 정경훈)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7월 9일~8월 8일) 광주·전남 지역 누적 강수량은 17.6mm로 평년의 17.6% 수준에 그쳤다.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강수량이다. 장기 폭염으로 증발산량과 농업용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저수지 수위가 빠르게 낮아지는 상황이다.

해남완도지사는 영산강사업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연구·맹진·화원·문내·황산 등 양수장 5개소를 24시간 가동하며 해남 주요 구역에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다.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현산면에서는 백포방조제 백포1·2 배수갑문 비상수문을 폐쇄해 퇴수를 재활용하는 방법도 동원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정경훈 지사장이 해남군의회를 방문해 가뭄 극복 현황을 설명하고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한 용수지선 말단부 양수장 설치사업을 건의해 군 의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정경훈 지사장은 "기상 및 저수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단계별 가뭄 대응체계를 강화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농업인의 영농피해 최소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